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미국 NPPC, 한국에 대한 신용보증자금 축소 촉구

미국의 NPPC(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은 한국정부가 미국 신용보증자금(GSM-102)의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미국에서 돼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료구입비보다도 싼 가격으로 사료곡물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PC는 한국의 신용자금의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축산물 수입보다는 사료곡물 수입에 쓰여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늘리게 만들어 결국 미국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의 축산농가를 돕는 것이며, 4억달러의 일부분에 불과한 6천만 달러의 신용보증으로 이미 한국은 1992년에 비해 508% 증가한 량의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지난 1년동안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2억달러의 돈육(3만7천톤)을 수입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수의 대폭증가로 소득 감소 예상

미국의 돼지고기 소비는 이번 연도에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양돈소득은 소비의 증가분 보다 훨씬 높은 돼지두수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어져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총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해보다 7.6%(4백34만두) 증가한 6천1십만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돈의 두수는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높은 2.1%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로 인한 비육돈의 증가가 마침내는 소비를 능가하는 두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와 증가의 차이가 계속되는 동안 지육시세는 떨어지고, 자돈생산과 비육돈의 생산에 따른 농가의 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IBP, 초음파에 의한 돼지고기 육질 측정법 채택

IBP 관계자에 의하면 초음파에 의한 돼지 육질측정법이 IBP의 각 공장에서 채택되어 실행되어질 계획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돼지고기 육질 측정법은 애뉴얼, 울트라사운드, 서비스사(뉴욕주이사)가 개발한 것으로 1시간에 1천200두의 측정능력이 있으며, 무게가 1kg으로 제 10~11늑골간의 지방, 살코기를 측정하여 전체의 살코기 비율을 산출하는 이 방법은 정확도가 92~76%로 높고, 종래의 지방두께와 등심근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우수하다. 현재 손압폰바레(미시칸주 사우스윌드)가 초음파 측정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돈육 상승육 kg당 6백엔 상회

지난 6월 셋째주 중반부터 일본 동경시장의 돼지고기 상승육 거래가격이 kg당 6백엔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입육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데다 여름철 성수를 대비한 가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육 감소가 직접적인 시장변동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를 국내산 위주로 돌아서게 하고 있어 이는 여름철 가격 폭을 상당수준 올려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 상태라면 6백~6백30엔대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이와 함께 장마철이 끝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백엔대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돈농가 15% 폐업 고려

일본 중앙축산회가 발표한 97년도 양돈경영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본 양돈농가의 장래 사육의향은 “현상유지”가 가장 많았고 “그만 둔다”는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을 계속하기 위한 희망조건으로 86%가 “돼지 가격 안정”을 바라고 있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양돈 경영자 6,115명에 앙케이트를 발송해 유효해답이 있었던 2,011명분을 집계한 것이다.

조사를 진행할 때의 일본 양돈시장은 대만으로 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돼지가격이 크게 올라 6월까지 SG 계속, 8월 관세 감면, 10월 이후의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정세가 크게 변동하는 중이었다.

5년 정도의 장래에서 사육의향은 “현상 유

지”가 61.5%, “그만 두겠다”가 15%, “확대”가 13.5%, “축소”가 10.0%였다.

4/4분기(99년 1~3월) 관세긴급조정조치(SG) 발동없을 듯

일본 대장성은 지난 5월 29일 쇠고기, 돼지고기의 관세긴급조정조치(SG)와 관련 4월분의 수입실적 및 98년도 4/4분기(99년 1~3월)의 SG발동기준 수준을 고시하고, 98년도 각 분기별(4분기) SG발동기준 수량을 확정하였다.

4월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4만6천102톤으로 98년도 1/4분기(4~6월) SG발동기준량 24만2천209톤의 19.0%를 소화한 셈이 되고 잔여분은 19만 6천 107톤이 된다. 또한, SSG(특별관세긴급조정조치) 4월수입은 4만6천116톤으로 SSG 발동기준량 61만2천854톤의 7.5%를 소화하였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4분기 SG발동기준 수량은 68만3천104톤으로 97년대비 6천30톤이 증가한 수량으로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4/4분기 일본의 돼지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SG발동)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E 98/99년도 돼지고기 생산증가 기록경 U 신 예상

지난 2년간에 걸쳐 EU의 돼지고기 시장에 가격조건이 호전되면서 돼지 사육량이 증가되어 왔으며, 그 결과 98/99년도(4월/3월) EU의 돼지 도축량이 약 2억 마리로 지난 연도 대비 약 6% 증가하는 기록경신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8년 7~9월의 돼지고기 생산증가율은 평균치를 훨씬 넘어선 9%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주기적인 생산증가율이 최고조를 넘어서 수그

러들 '99년 초까지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돼지고기 주 수출지는 여전히 아시아가 되겠지만 일본시장에서는 북미 공급자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침체로 인한 수요 약화도 예상된다. 다만 중부와 동부 유럽의 돼지고기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유럽 돈 콜레라 위기 진정 국면으로

EU 상임수위위원회(Standing Veterinary Committee)는 네덜란드에 대해 돈콜레라로 야기됐던 규제조치를 해제했다. 스페인에 대해서도 세고비아, 마드리드, 틀레도에서 출하되는 돼지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독일에도 지역간 돼지 이동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그 동안 유럽 양돈업계를 위협했던 돈콜레라 파동은 일단락 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위원회가 마지막 남은 규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작년 2월 돈콜레라 발생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돈콜레라 전염을 성공적으로 방지해 온 것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금년 3월 13일 이후로 네덜란드에서는 돈콜레라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동안 돈콜레라와 관련하여 국내 사육돼지를 900만~1,000만마리 도축, 폐사시켰으며 그로 인한 비용부담도 막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만 일본으로 육가공품 수출 부분재개

일본은 지난 7월 4일 대만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 햄 등 익힌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했다고 대만의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밝혔다.

이로써 구제역 발생이후 중단된 대만의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수입재개 되었으며, 점차 그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지난 봄 대만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수백만 마리의 돼지들이 감염된 이후 대만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였다.

대만은 수입 금지조치 이전에 일본의 돼지고기 최대 수입선이었으며, 2위가 덴마크, 3위가 미국이었다. 대만은 매년 돼지 6백만 마리에 해당하는 27만톤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해 왔으며, 이는 일본 돼지고기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이었다. 대만의 농업위원회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여행한 대만 관광객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와 대만에 이 질병을 퍼뜨렸거나 중국에서 밀수입된 돼지새끼나 양이 전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육류시장 개방으로 국내 육류업계 비상

대만에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이 임박함에 따라 대만 육류가공업연합(Taiwan Meat Processors Industry Association)은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공급을 늘리고 작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있다.

대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이후 국내산 육류가 7월부터 밀려올 수입산에 비해 더 신선하고, 건강에 좋으며 맛이 뛰어나다고 선전하고 있다. 대만 육류업계의 이런 비상사태는 대만이 미국에 육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대만은 지난 2월 미국이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가입을 지원하기로 한 대가로 국내 육류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협상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6월부터 연간 5,000톤 수입하게 되며 향후 6년에 걸쳐서 수입량을 연간 1만5,400톤까지 점차로 늘려가는 것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가공품

과 닭고기도 연간 7,500톤, 1만톤 씩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향후 6년에 걸쳐서 현재의 15%에서 12.5%로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대만은 국민 일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 미국의 돼지고기 공급업체는 대만 시장에 진출하려고 애써왔다. 대만 육류가공업연합은 국내시장 수호 뿐만 아니라 일본과 홍콩 등 주변국으로 대만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출촉진에도 힘쓰고 있다.

아 아시아국가연대, “현행 WTO협정 불 시 공정 수정해야”

세계농민대회(IFAP)에 참석한 각국의 농업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현행 WTO규정의 수정 필요성을 밝히면서 빠른 시일내에 가족농업자 정상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제33차 세계농민대회에 참석한 일본 전농(JA)대표단, 국제협동조합동맹(ICA)의 로드리게스 회장, 한국 농협중앙회 원철희 회장 등은 유대를 가지며 WTO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21세기를 향한 농업의 확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현행 WTO규정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 강화를 호소했다.

또한 아시아가 뜻을 같이하여 EU와 연대하는 것이 WTO협정의 수정과 가족농업자의 이익확보를 위해 중요한 방편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내년 미국에서 개최예정인 제3회 WTO 각료회의 이전에 가족농업자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카 돼지고기 품질보증제도 도입 나 다

캐나다 양돈위원회(Canadian Pork

Council:CPC)는 돈육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위생 관리체제를 따르는 양돈농가를 인증하는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돼지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가공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주요 육가공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캐나다 돼지고기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가는 상세한 관리기록을 해야한다.

최소 3개월 이상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불시에 검사를 받은 다음에야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것으로 생산자들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중 '96년 공식발표 돈육수입 5천4백톤 국

중국은 식당, 호텔, 식품가공용에 국한된 식육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수입은 직접수입의 경우와 홍콩을 경유한 재수입 등 두가지 경로가 있다. '95년에는 돼지고기 3천434톤, 내장이 1천521톤으로 합계 4천955톤을 수입했다. '96년은 돼지고기가 3천521톤, 돼지 내장이 1천861톤계 5천382톤으로 전년을 약간 상회하였다. 그외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등이 중국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홍콩의 경우 불법수입이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의 축산보고에 의하면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이 '95년 10만6천100톤(그중 미국산이 5천600톤), '96년 7만7천400톤(그중 미국산이 5천100톤)이었는데 적어도 그중 2분의 1은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어 직접수입 3천300톤을 포함하여 4만톤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홍콩무역측은 보고 있다. **養豚**